



개인 타이틀 기록 향해 달리는 '호랑이들'



이용규



윤석민



김종국

안타왕

108개...선수와 3개 차

전반기 마감을 눈 앞에 둔 KIA 타이거즈가 막바지 기록 굳히기에 몰입한다. 4위 자리를 놓고 1.5게임차로 동봉서주하고 있는 팀 성적만큼 선수들의 개인 기록도 흥미를 더하고 있다. 28일 현재 이용규는 108개의 안타를 때려내 최다안타 1위 김현수(두산)를 3개 차로 쫓고 있다. 윤석민은 다승 1위(12승)·평균자책점 2위(2.50)·탈삼진 3위(92개)로 마운드 평정에 나섰다. 투타에서 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이용규·윤석민과 함께 노장 김중국은 250도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팀 4위 진입과 더불어 공·수·주에 거친 세 선수의 활약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용규의 최다안타 부문 1위 복귀 여부는 개인은 물론 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승왕

12승...단독 선두

톱타자로 위용을 과시하던 이용규는 슬럼프가 깊어지면서 우울한 7월을 보내고 있다. 27일 경기까지 최근 10경기에서 3개의 안타에 그친 이용규는 그 사이 최다안타 1위 자리를 김현수에게 내주었다. 그라운드에서 '날쌘돌이' 이용규는 타격 부진으로 특유의 기동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우리전에서는 모처럼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검투사를 당하는 등 부쩍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 팀 4위를 위한 톱타자의 역할은 물론 테크니컬을 달고 베이징 올림픽에 나서야 하는 이용규는 '감(感)'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27일 우리전 선발로 나와 시즌 12승을 올린 윤석민은 로테이션 일정을 하루 앞당겨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31일 LG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큰 기록

250 도루

1개 부족...통산 8번째

없이 굳건히 마운드를 지켜줬던 윤석민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의 승리와 다승 독주를 위한 필승 카드로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249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는 '수비 달인' 김중국은 7월 18일 이후 2루를 홈치지 못하면서 250도루 달성을 눈앞에 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 27일까지 최근 5경기에서 타율이 0.133에 머무르는 등 기록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김중국은 전반기에 프로야구 통산 8번째로 250도루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SK의 투수 조웅천은 28일 현재 800경기 출장과 100세이브에 2개를 남겨두고, 삼성 투수 이상목은 100승에 1승이 부족하다. 한화외의 김진식 감독은 31일 통산 4번째로 1천900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장식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황제의 텃밭' 우리가 접수

우즈 무려 6회 우승했던 PGA 월드골프챔피언십 최경주·앤서니 김 출전

슬럼프 탈출을 예고한 '뱅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왼쪽)와 상승세를 탄 '타이언'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오른쪽)이 '황제의 텃밭' 접수에 나선다. 최경주와 앤서니는 오는 31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 7천455야드)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웬만한 선수는 이 대회에서 우승은 꿈도 꾸지 못했다. 파이어스톤골프장은 바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안방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파이어스톤에 모습을 드러낸 1999

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내리 우승한 우즈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또 다시 3연패를 달성했다. 사할리골프장으로 장소를 옮겨 열렸던 2002년 대회 때를 포함해 9차례 출전한 우즈는 우승 여섯번과 준우승 한번, 공동4위 두번 등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우즈가 무릎 부상이 도져 시즌을 접은 올해 파이어스톤골프장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최경주는 그동안 파이어스톤에서 '볼10'에도 한 번 듣지 못했지만 브리티시오픈에서 스윙 감각을 되찾아 사기가 높다. 장기간 페이스가 위락이 되살아난 최경주는 그런 플레이만 뒷받침된다면 우승 욕심도 무리가" 아니라는 야심이다.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되지 않은 앤서니는 전반기에도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장타력과 정교한 롱아이언샷이 요긴한 파이어스톤에서 앤서니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아서'

위성미 또 PGA 도전 리노-타호오픈 출전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사진)가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위성미는 오는 8월 1일(이하 한국시간) 네바다주 리노의 몬트루골프장(파72, 7천472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리노-타호오픈에 출전한다. 지난해 1월 소니오픈 이후 1년8개월만에 다시 남부대회에 나서는 그는 "되지도 않을 일을 왜 버리느냐"는 따가운 농담도 있지만 위성미는 "이번엔 반드시 명예회

복 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위성미는 지금까지 일곱번 PGA 투어 대회에 출전했지만 한번도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남자 못지 않은 장타력을 뽐낸 미셸 위가 PGA 투어 대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찬사는 실재가 이어지고 특히 여자대회에서 우승 한 번 거두지 못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기권, 컷오프, 실격 등이 이어지자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올해 마지막 남은 출전 기회가 주어진 LPGA 투어대회인 캐나다여자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내년 투어 카드를 따는 일이라는 충고도 있었다. 하지만 위성미는 출전을 강행했다.

이승엽 오늘 귀국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2)이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30일 귀국한다. 29일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방문경기를 끝으로 일본프로야구 전반기 일정을 끝내는 이승엽은 30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이번 야구대표팀에서 유일한 해외파 선수인 이승엽은 8월 1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리는 소집 행사를 시작으로 대표팀에 합류한다. 이승엽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팀은 31일까지 이어지는 프로야구 정규리그 경기를 마친 뒤 대표팀에 모인다. 대표팀은 8월 1일 소집에 이어 4일 네덜란드와 평가전, 5~6일 쿠바와 평가전을 가진 뒤 10일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우리담배 "히어로즈 후원 중단"

KBO에 명칭 쓰지 말아달라 요청

프로야구 우리 히어로즈 후원기업인 우리담배가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담배는 지난 24일 우리 히어로즈에 후원 중단 의사를 전달하고 구단 명칭에서도 '우리'라는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담배 관계자는 "우리 히어로즈에 대한 계약 후 가입금 미납 과문 등으로 인해 회사를 홍보하기는 커녕 욕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후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 시즌 안에 다른 후원

회사를 찾아보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우리는 명칭은 당장 쓰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원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행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계약 파기의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담배는 올해 초 우리 히어로즈 운영사인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에 3년간 300억 원을 주고 구단 명칭 등을 이용해 회사를 홍보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가 센테니얼의 가입금 미납 과문으로 논란이 벌어지자 센테니얼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30일(수) ▲전국 남녀 종합 농구선수권 남고부 결승(13:50·SBS스포츠) ▲제62회 전국씨름선수권 대회(14:00·KBS N SPORTS) ▲프로야구<롯데·두산>(18:10·SBS스포츠)<LG·기아>(18:20·XSPORTS), <한화·우리>(18:20·MBC ESPN), <SK·삼성>(18:30·KBS N SPORTS) ▲올림픽 출전팀 친선 축구 토너먼트(카메룬: 네덜란드)(22:00·MBC ESPN) 31일(목)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프리시즌(수트가르트: 아스날)(04:00·MBC ESPN)

부동산 강박계의 자부심 대승법률경매(주) T.062)228-1368 062)226-1399

대승공인중개사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토지개발전문가과정 광주교육 8월 5일 개강